KOREA ARCHERY 2024

FACT BOOK

PARIS 2024

CONTENTS

2024 한국 양궁 팩트 북

: 2024 파리 올림픽

1. 양궁 개요

양궁 경기, 경기 방식 08

올림픽 쿼터 획득 현황 14

2024년 양궁 월드컵 경기 결과 18

2024년 양궁 월드컵 경기 분석 20

올림픽 출전국 24

경기 세부 일정 26

2. 대한민국 양궁

대한민국 양궁 코칭스태프 34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36

관전 포인트 48

준비과정 56

3. 올림픽 도전사

한국 양궁의 신화 80

올림픽 메달 현황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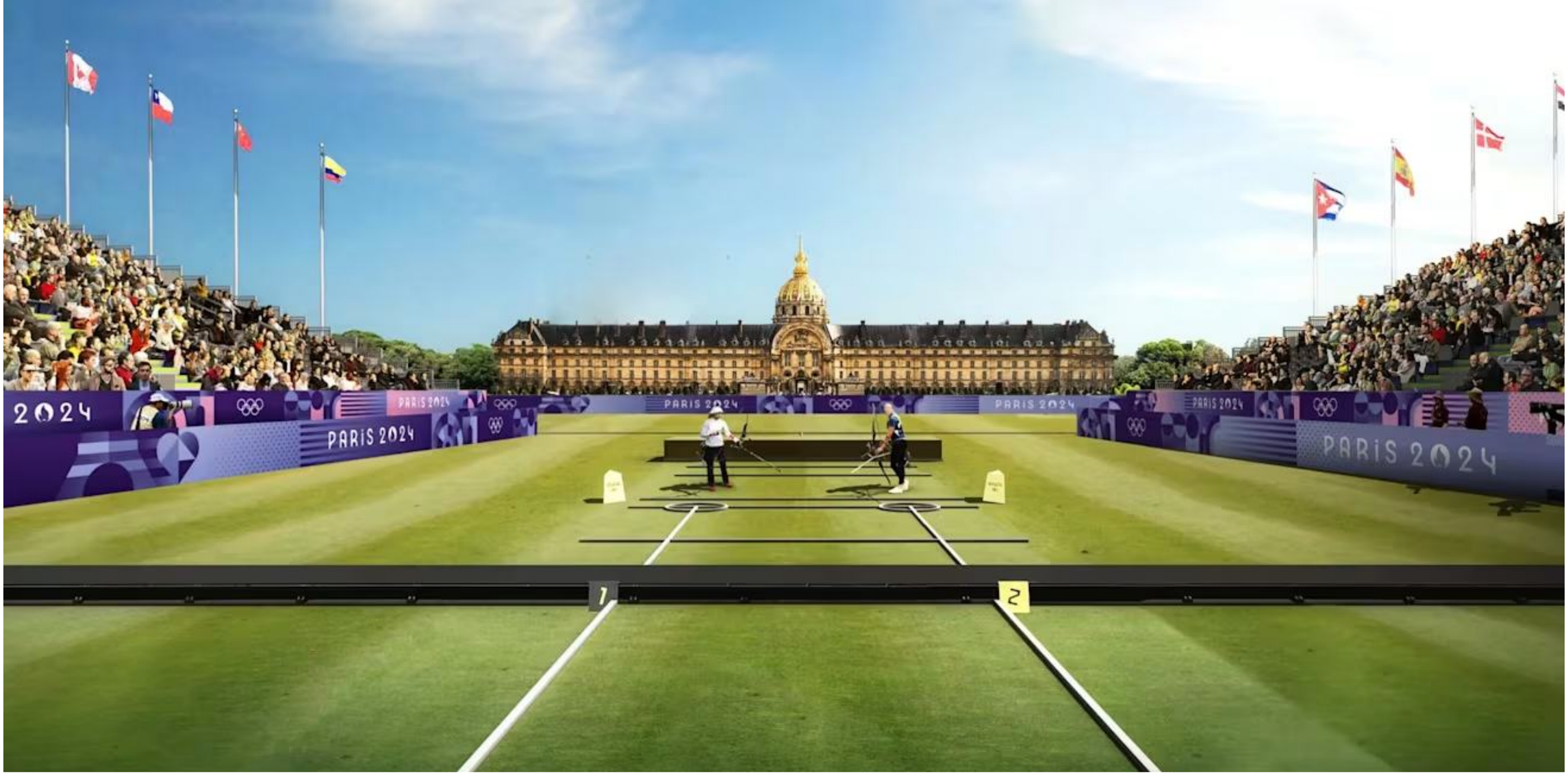
제33회 파리 올림픽 숲 향한 위대한 도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2024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 막을 올린다.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양궁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 종목 금메달을 목표로 대회에 임하고 있다.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와 개인전 10번째 우승, 남자 양궁은 단체전 3연패 역사에 도전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6명의 선수가 파리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다. 진천선수촌에 파리 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무대를 마련해 실전 훈련도 마쳤다. 금빛 승전보를 전할 준비는 끝났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일만 남았다.

깨지지 않는 신화, 한국 양궁

한국 양궁은 매 올림픽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하계올림픽에서 획득한 총 96개의 금메달 중 27개가 양궁에서 획득되었다. 이는 총 금메달 개수의 28%를 차지한다.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한차례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특히 도쿄 올림픽에선 여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전 종목을 석권하며 3관왕의 기록을 세웠다. 남자 단체전 역시 금메달을 차지하며 2회 연속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다. 양궁이 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으로 여겨지는 배경이자,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양궁 종목에서 기대하는 이유다.

1 양궁 개요



양궁 경기

2024 파리 올림픽의 양궁 경기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앵발리드 광장(Esplanade des Invalides) 북쪽 잔디 공원에서 치러진다. 남녀 개인전 2개, 단체전 2개, 혼성전 1개. 양궁 경기에는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금메달 이벤트		
남자(2)	여자(2)	혼성(1)
개인	개인	-
팀	팀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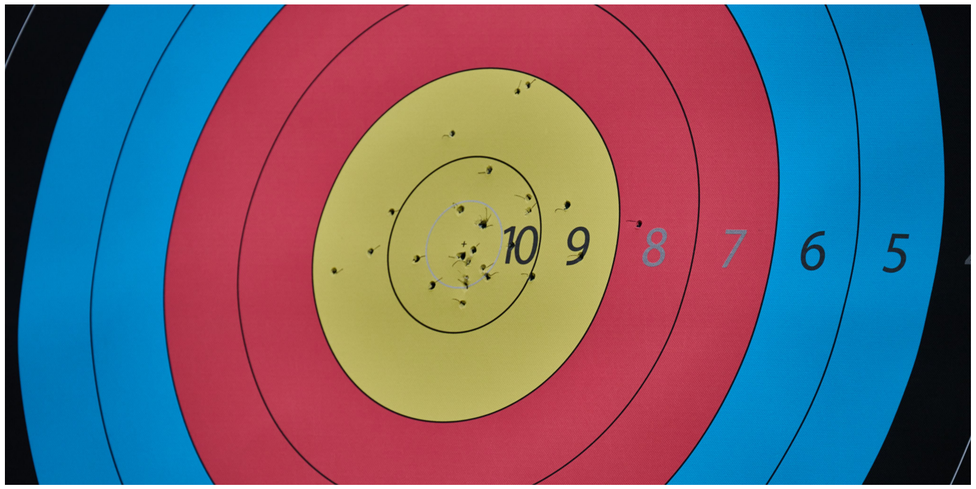
앵발리드 광장

앵발리드 광장은 파리 7구에 자리 잡고 있다. 나폴레옹의 묘역이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앞 광활한 녹지 공간이며, 파리 중심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 꼽힌다. 랭킹 라운드와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결승 경기 모두 앵발리드 광장에서 진행된다.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경기 방식

양궁 경기는 개인(남/여), 단체(남/여), 혼성 경기의 대진표 구성을 위한 랭킹 라운드를 시작으로 출발한다. 랭킹 라운드 진행 후, 총 다섯 개의 세부 종목별 토너먼트 경기가 이루어지며, 토너먼트 최종 성적에 따라 금/은/동메달이 결정된다.



득점

개인전 경기는 3발 최대 5세트로 진행되고 세트 스코어 6점을 획득한 선수가 승리한다. 각 세트의 승자는 2점, 동점은 각 1점을 부여받는다. 5세트 후 5-5 동점일 경우, 추가로 한 발의 화살을 발사(슛오프)하여 화살이 중앙에 더 가까운 선수가 승리한다. 각 선수의 화살이 중앙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꽂힐 경우, 2차 슛오프 진행을 통해 승자를 가린다. 슛오프는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며, 슛오프를 통해 승부가 결정되면 6-5로 경기가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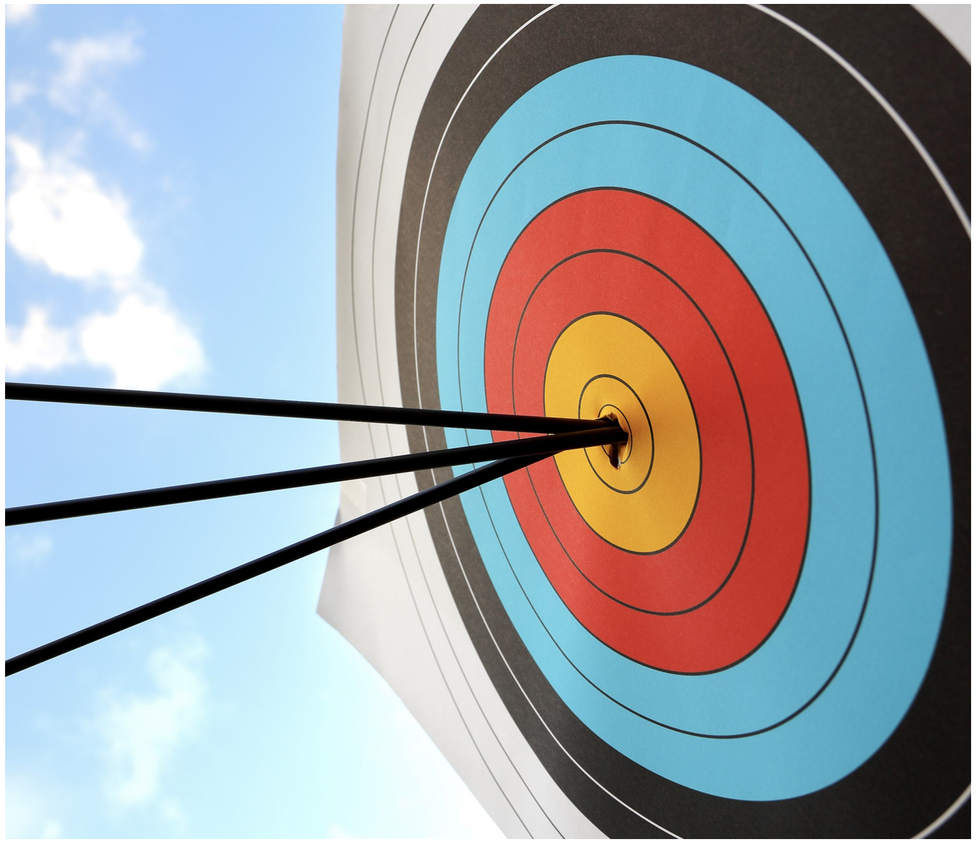
단체전 경기는 한 팀당 3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6발 최대 4세트로 진행된다(1선수/2발). 세트 스코어 5점을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세트별 점수 부여는 개인전과 동일하다. 4세트 후 4-4 동점일 경우, 각 선수 당 한 발의 화살을 추가 발사하는 슛오프를 진행하며, 3발 합계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한다.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표적 중앙에 더 가까운 화살을 쏜 팀이 승리한다.

혼성전 경기는 한 팀당 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4발 최대 4세트로 진행된다(1선수/2발). 세트 스코어 5점을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세트별 점수 부여는 단체전과 동일하다. 4세트 후 4-4 동점일 경우, 각 선수 당 한 발의 화살을 추가 발사하는 슛오프를 진행하며, 2발 합계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한다.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 표적 중앙에 더 가까운 화살을 쏜 팀이 승리한다.



경기 방식의 변화

양궁 시작	• 1500년경 영국을 중심으로 오락용 경기로 시작 • 영국의 헨리 7세는(1538년) 양궁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한 양궁 애호가로 유명 • 당시에 스포츠 형식으로 발전되면서 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영국 청교도에 의해 아메리카 합중국에 보급
올림픽 정식 종목	•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 • 지역적 특성과 경기 방식 차이로 중단 • 1931년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양궁연맹(FITA)이 경기 방식 조정과 규칙 등을 제정 •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부터 재채택
한국 양궁 국제대회 첫 출전	• 1978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안게임에 여자부만 출전하여 김진호가 개인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은메달 획득 • 1979년 독일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도 여자부만 출전하여 김진호가 5관왕을 하면서 세계 양궁은 한국을 주목 • 남자부는 1981년 이탈리아 푼타알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1982년 제9회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에서 김영운이 은메달 획득
더블 라운드 (1957~1986)	•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 4개 거리를 36발씩 144발(싱글 라운드) 2회 발사, 총 288발(더블 라운드)로 개인전 순위를 가려 메달 수여 • 단체전은 3명×288발=864발로 경기 진행 • 변수가 없고 잘 쏘는 선수, 잘 쏘는 국가가 이기는 경기 방법
그랜드피타 라운드 (1987~1991)	•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 4개 거리를 36발씩 144발(싱글 라운드) 경기로 24명 선발 •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를 거리별 9발씩 36발 발사 후 16강, 12강, 8강에서 순위 결정 • 16강은 단거리(30m)에서 장거리(90m/70m), 12강은 장거리(90m/70m)에서 단거리(30m), 8강은 단거리(30m)에서 장거리(90m/70m) 순으로 발사하여 순위 결정 • 경기 방식이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1/8로 화살 발수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강세였던 미국 남자부와 소련 여자부가 독주하지 못하고 변수들이 나타남
올림픽 라운드 (1992~2005)	•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 4개 거리를 36발씩 144발(싱글 라운드) 예선 경기로 64명 선발 • 70m에서 3발×5엔드 15발 총점으로 승부를 결정(64강, 32강, 16강)하고, 파이널 라운드 8강, 4강, 순위전은 3발×4엔드 12발 총점으로 승부를 결정 • 단체전은 3명×3발×3엔드=270점 경기 방식 채택 • 세계선수권대회는 128강부터 실시
개인전 세트제 경기 (2001~현재)	• 70m 36발×2회=72발로 예선전 진행 • 세계선수권대회는 128강, 올림픽은 64강 선발 • 70m에서 개인전은 3발×5세트로 경기 • 이기면 승점 2점, 비기면 승점 1점을 획득하여, 총점 6점을 먼저 획득한 선수가 승리 • 단체전은 기존 점수제 방식을 적용했으나, 종전에 270점 만점에서 240점(3명×2발×4엔드)으로 경기 방식 변경
단체전 세트제 경기 (2014~현재)	• 3명의 선수가 2발씩 4엔드를 발사하여 승점 5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 • 개인전 세트제 방식과 동일하게 이기면 승점 2점, 비기면 승점 1점을 획득하고 총점 5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 • 세계선수권대회 쿼리피케이션도 기존 4개 거리에서 70m 36발 2회로 변경 • 리커브는 모든 경기를 세트제로 시행하고 컴파운드는 점수 누적제로 시행 • 도쿄 올림픽부터 혼성 단체전 시행



파리 올림픽 쿼터 획득 현황

순	국가	남자	여자	도쿄(남)	도쿄(여)	비고
1	한국(KOR)	3	3	3	3	
2	중국(CHN)	3	3	3	3	
3	인도(IND)	3	3	3	1	
4	대만(TPE)	3	3	3	3	
5	일본(JPN)	3	1	3	3	
6	카자흐스탄(KAZ)	3	-	3	-	
7	인도네시아(INA)	1	3	3	1	
8	말레이시아(MAS)	-	3	1	1	
9	방글라데시(BAN)	1	-	1	1	
10	부탄(BHU)	1	-	-	1	
11	몽골(MGL)	1	-	1	1	
12	베트남(VIE)	1	1	1	1	
13	이란(IRI)	-	1	1	-	
14	이스라엘(ISR)	1	1	1	-	
15	우즈베키스탄(UZB)	1	1	-	-	
16	프랑스(FRA)	3	3	3	1	
17	영국(GBR)	3	3	3	3	
18	이탈리아(ITA)	3	1	1	3	
19	튀르키예(TUR)	3	1	1	1	
20	독일(GER)	1	3	1	3	
21	네덜란드(NED)	1	3	3	1	
22	캐나다(CAN)	1	1	1	1	
23	체코(CZE)	1	1	-	1	
24	스페인(ESP)	1	1	1	1	
25	핀란드(FIN)	1	-	1	-	
26	룩셈부르크(LUX)	1	-	1	-	
27	몰도바(MDA)	1	1	1	1	
28	우크라이나(UKR)	1	1	1	3	
29	오스트리아(AUT)	-	1	-	-	
30	덴마크(DEN)	-	1	-	1	
31	에스토니아(EST)	-	1	-	1	
32	폴란드(POL)	-	1	1	1	
33	루마니아(ROU)	-	1	-	1	
34	산마리노(SMR)	-	1	-	-	
35	슬로바키아(SVK)	-	1	-	1	
36	슬로베니아(SLO)	1	1	1	-	
37	아제르바이잔(AZE)	-	1	-	-	
38	콜롬비아(COL)	3	1	1	1	
39	멕시코(MEX)	3	3	1	3	
40	미국(USA)	1	3	3	3	
41	아르헨티나(ARG)	1	-	-	-	
42	브라질(BRA)	1	1	1	1	
43	칠레(CHI)	1	-	1	-	
44	쿠바(CUB)	1	-	-	-	
45	엘살바도르(ESA)	1	-	-	-	
46	버진아일랜드(ISV)	1	-	1	-	
47	차드(CHA)	1	-	-	1	
48	이집트(EGY)	1	1	1	1	
49	남아프리카공화국(RSA)	1	-	-	-	
50	기니(GUI)	-	1	-	-	
51	튀니지(TUN)	-	1	1	1	
52	푸에르토리코(PUR)	-	1	-	-	
53	호주(AUS)	1	1	3	1	
	합계	64	64	**61**	**55**	

* 아시아 대륙(남자 25명, 여자 23명), 유럽 대륙(남자 22명,여자 28명), 아메리카 대륙(남자 13명, 여자 8명), 아프리카 대륙(남자 3명, 여자 4명), 오세아니아 대륙(남자 1명, 여자 1명)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남·여 동시 쿼터 획득 국가

순	국가	남자	여자	도쿄(남)	도쿄(여)	비고
1	한국(KOR)	3	3	3	3	
2	중국(CHN)	3	3	3	3	
3	프랑스(FRA)	3	3	3	1	
4	인도(IND)	3	3	3	1	
5	대만(TPE)	3	3	3	3	
6	영국(CBR)	3	3	3	3	
7	멕시코(MEX)	3	3	1	3	

여자 단체전 대륙별 쿼터 획득 현황

구분	단체전 쿼터 현황			개인전 쿼터 현황				
	아시아(6개국)	유럽(4개국)	아메리카(2개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1	한국(KOR)	프랑스(FRA)	멕시코(MEX)	11개국	20개국	4개국	4개국	1개국
2	중국(CHN)	독일(GER)	미국(USA)	23명	28명	8명	4명	1명
3	대만(TPE)	네덜란드(NED)						
4	인도(IND)	영국(GBR)						
5	인도네시아(INA)							
6	말레이시아(MAS)							

남자 단체전 대륙별 쿼터 획득 현황

구분	단체전 쿼터 현황			개인전 쿼터 현황				
	아시아(6개국)	유럽(4개국)	아메리카(2개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1	한국(KOR)	이탈리아(ITA)	멕시코(MEX)	13개국	14개국	9개국	3개국	1개국
2	인도(IND)	튀르키예(TUR)	콜롬비아(COL)	25명	22명	13명	3명	1명
3	대만(TPE)	프랑스(FRA)						
4	중국(CHN)	영국(GBR)						
5	일본(JPN)							
6	카자흐스탄(KAZ)							

* **개인전** 남·여 40개국 64명(파리 올림픽 전체 참가 국가는 53개국) | **단체전** 남·여 각 12개국 |
혼성전 27개국(아시아 9개국, 유럽 12개국, 아메리카 4개국, 아프리카 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2024년도 양궁 월드컵 경기 결과

2024년도 월드컵 1차 대회(상해, 4/23~28)

구분	단체전		개인전		혼성 단체전	종합 성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위	인도	중국	ANDRES TEMINO MEDIEL (스페인)	임시현 (한국)	한국	- 금메달 2개 - 은메달 3개 - 동메달 1개
2위	한국	한국	김제덕 (한국)	DEEPIKA KUMARI (인도)	스페인	
3위	대만	독일	김우진 (한국)	LI JIAMAN (중국)	인도	
4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THOMAS CHIRAULT (프랑스)	남수현 (한국)	멕시코	

2024년도 월드컵 2차 대회(예천, 5/21~26)

구분	단체전		개인전		혼성 단체전	종합 성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위	한국	중국	이우석 (한국)	임시현 (한국)	멕시코	- 금메달 3개 - 은메달 3개
2위	독일	한국	김우진 (한국)	전훈영 (한국)	일본	
3위	캐나다	독일	ABDULLAH VILDIRMIS (튀르키예)	ALEJANDRA VALENCIA (이탈리아)	스페인	
4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LE QUOC PHONG (베트남)	DEEPIKA KUMARI (인도)	프랑스	

2024년도 월드컵 3차 대회(안탈랴, 6/18~23)

구분	단체전		개인전		혼성 단체전	종합 성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위	한국	한국	김우진 (한국)	YANG XIAOLEI (중국)	일본	- 금메달 3개 - 은메달 1개
2위	프랑스	프랑스	MARCUS D'ALMEIDA (브라질)	SONODA WAKA (일본)	한국	
3위	중국	일본	DHIRAJ BOMMADEVARA (인도)	ALEJANDRA VALENCIA (이탈리아)	인도	
4위	일본	인도	MAURO NESPOLI (이탈리아)	ANKITA BHAKAT (인도)	멕시코	

2024년도 양궁 월드컵 경기 분석

리커브 남자팀

국가	단체 랭킹 (개인 랭킹)	1차 월드컵				2차 월드컵				3차 월드컵				평균
		16강	8강	4강	메달전	16강	8강	4강	메달전	16강	8강	4강	메달전	
한국	**1위** (2위, 3위, 9위)	59 57 53 56 56.3	56 57 57 - 56.7	57 58 58 - 57.7	57 55 53 - 55	57 57 55 - 56.3	58 54 58 58 57	58 57 56 - 57	57 56 56 - 56.3	59 57 57 - 57.7	58 57 58 - 57.7	57 58 53 58 56.5	56 57 56 - 56.3	56.69
인도	**2위** (12위, 31위, 114위)	56 54 51 53 53.5	59 56 55 - 56.7	55 55 56 - 55.3	57 55 55 - 55.7	59 56 53 55 55.8	- - - - -	- - - - -	- - - - -	58 53 57 - 56	- - - - -	- - - - -	- - - - -	55.40
대만	**3위** (11위, 37위, 52위)	49 55 58 58 55	56 58 58 57 57.3	50 56 54 - 53.3	- - - - -	54 56 56 55 55.3	56 57 53 - 55.3	- - - - -	- - - - -	55 52 55 47 52.3	- - - - -	- - - - -	- - - - -	54.77
중국	**4위** (46위, 70위, 103위)	56 52 57 - 55	56 51 58 55 55	- - - - -	- - - - -	56 54 53 56 54.8	57 58 56 - 57	53 55 55 55 54.5	- - - - -	56 57 58 - 57	55 59 57 - 57	55 56 55 55 55.3	- - - - -	55.57
이탈리아	**5위** (5위, 24위, 54위)	57 56 50 59 55.5	54 57 57 - 56	54 56 56 - 54.7	54 57 55 54 55	57 56 56 58 56.8	54 56 54 54 54.5	54 56 54 54 54.5	54 56 56 55 55.3	55 53 52 - 53.3	- - - - -	- - - - -	- - - - -	55.15
튀르키예	**6위** (4위, 27위, 45위)	56 56 56 - 56	56 57 56 - 56.3	53 54 56 - 54.3	- - - - 	54 55 56 56 55.3	58 57 55 55 56.3	- - - - -	- - - - -	56 57 56 - 56.3	54 55 54 - 54.3	- - - - -	- - - - -	55.57
일본	**7위** (39위, 75위, 120위)	53 54 55 57 54.8	- - - - -	- - - - -	- - - - -	56 56 57 56 56.3	53 56 56 58 55.8	55 55 55 57 55.5	- - - - -	54 51 54 58 53.5	54 59 53 55 55.3	54 54 51 54 53.3	53 56 55 - 54.7	54.97
프랑스	**8위** (15위, 16위, 17위)	54 56 56 - 55.3	- - - - -	- - - - -	- - - - -	56 58 54 - 56	- - - - -	- - - - -	- - - - -	53 56 58 57 56	54 57 57 - 56	55 49 56 57 54.3	55 55 56 - 55.3	55.45
멕시코	**12위** (17위, 80위, 419위)	55 57 51 52 53.8	- - - - -	- - - - -	- - - - -	54 55 54 54 54.3	- - - - -	- - - - -	- - - - -	57 57 54 - 56	56 54 55 55 55	- - - - -	- - - - -	54.67
콜롬비아	**16위** (34위, 42위, 212위)	- - - - -	- - - - -	- - - - -	- - - - -	57 54 55 52 54.5	- - - - -	- - - - -	- - - - -	57 56 52 - 55	- - - - -	- - - - -	- - - - -	54.71
영국	**18위** (60위, 72위, 104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56 52 57 55.8	56 56 57 54 55.8	- - - - -	- - - - -	55.75
카자흐스탄	**20위** (26위, 120위, 140위)	51 55 55 51 53	- - - - -	- - - - -	- - - - -	56 57 52 55 55	- - - - -	- - - - -	- - - - -	54 56 55 55 55	- - - - -	- - - - -	- - - - -	54.33

* 한국 개인 랭킹은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순

KOREA ARCHERY MEDIA GUIDE BOOK

2024년도 양궁 월드컵 경기 분석

리커브 여자팀

국가	단체 랭킹 (개인 랭킹)	1차 월드컵				2차 월드컵				3차 월드컵				평균
		16강	8강	4강	메달전	16강	8강	4강	메달전	16강	8강	4강	메달전	
한국	**1위** (2위, 21위, 61위)	57 58 57 -	50 55 54 -	54 53 55 -	54 54 57 55	57 59 58 -	57 54 56 54	58 56 57 55	54 55 56 52	58 55 54 55	57 55 57 55	57 56 58 53	58 58 59 -	**55.73**
		57.3	53	54	55	58	55.3	56.5	54.3	55.5	55.5	56	58.3	
중국	**2위** (15위, 28위, 32위)	56 55 54 54	49 57 56 53	55 52 51 56	55 56 50 56	54 56 57 -	50 55 54 57	53 57 56 56	54 55 54 56	53 57 50 -	- - - -	- - - -	- - - -	**54.41**
		54.8	53.8	53.5	54.3	55.7	54	55.5	54.8	53.3	-	-	-	
프랑스	**3위** (11위, 44위, 101위)	46 54 50 56	51 52 54 39	- - - -	- - - -	56 54 57 -	54 55 58 55	55 52 54 54	- - - -	56 54 53 -	56 54 53 -	59 57 55 53	55 55 53 -	**53.82**
		51.5	49	-	-	55.7	55.5	53.8	-	54.3	54.3	56	54.3	
독일	**4위** (10위, 13위, 16위)	50 54 53 57	55 56 55 52	55 55 51 54	55 55 51 54	57 58 51 54	53 56 59 57	56 56 56 55	- - - -	56 52 51 53	52 56 56 53	- - - -	- - - -	**54.47**
		53.5	54.5	53.8	53.8	55	56.5	55.8	-	53	54.3	-	-	
멕시코	**5위** (3위, 32위, 45위)	53 49 53 47	50 49 54 54	55 55 55 53	- - - -	55 51 56 54	58 54 54 52	- - - -	- - - -	57 53 58 55	55 51 59 57	- - - -	- - - -	**53.41**
		50.5	51.8	51.8	-	54	54.5	-	-	55.8	55.5	-	-	
미국	**6위** (1위, 41위, 51위)	44 51 52 50	56 48 49 57	55 45 56 53	- - - -	53 55 53 -	52 54 53 53	- - - -	- - - -	56 49 53 56	- - - -	- - - -	- - - -	**52.42**
		49.3	52.5	52.5	-	53.7	53	-	-	53.5	-	-	-	
대만	**7위** (36위, 47위, 57위)	51 54 54 50	51 55 54 56	- - - -	- - - -	54 55 54 53	- - - -	- - - -	- - - -	51 53 53 51	- - - -	- - - -	- - - -	**53.08**
		52.3	54	-	-	54	-	-	-	52	-	-	-	
인도	**8위** (12위, 40위, 45위)	50 55 51 52	50 55 51 52	- - - -	- - - -	53 56 56 57	- - - -	- - - -	- - - -	54 54 53 55	53 53 57 53	52 56 58 57	- - - -	**53.88**
		52	52	-	-	55.5	-	-	-	54	54	55.8	-	
인도네시아	**9위** (38위, 70위, 734위)	48 54 54 53	53 54 50 53	49 47 52 -	51 48 50 -	54 58 54 57	54 55 56 53	51 56 58 -	57 58 54 55	50 52 54 51	- - - -	- - - -	- - - -	**52.94**
		52.3	52.5	49.3	49.3	55.8	54.5	55	56	51.8	-	-	-	
네덜란드	**10위** (20위, 50위, 76위)	52 49 52 51	53 48 54 50	- - - -	- - - -	57 55 56 54	- - - -	- - - -	- - - -	54 55 55 52	53 55 52 51	- - - -	- - - -	**52.92**
		51	51.3	-	-	55.5	-	-	-	54	52.8	-	-	
영국	**15위** (8위, 18위, 168위)	- - - -	- - - -	- - - -	- - - -	56 55 56 54	54 54 56 54	- - - -	- - - -	52 50 54 -	53 56 58 54	- - - -	- - - -	**54.33**
		-	-	-	-	55.3	54.5	-	-	52	55.5	-	-	
말레이시아	**19위** (43위, 121위, 474위)	41 52 48 -	- - - -	- - - -	- - - -	56 49 50 52	53 51 52 -	- - - -	- - - -	55 55 55 50	57 57 53 -	51 51 52 53	- - - -	**52.02**
		47	-	-	-	51.8	52	-	-	53.8	55.7	51.8	-	

* 한국 개인 랭킹은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순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국

국가명	남자	여자	국가명	남자	여자
한국	3	3	베트남	1	1
중국	3	3	아르헨티나	1	-
프랑스	3	3	방글라데시	1	-
영국	3	3	부탄	1	-
인도	3	3	차드	1	-
멕시코	3	3	칠레	1	-
대만	3	3	쿠바	1	-
콜롬비아	3	1	엘살바도르	1	-
이탈리아	3	1	핀란드	1	-
일본	3	1	버진아일랜드	1	-
튀르키예	3	1	룩셈부르크	1	-
카자흐스탄	3	-	몽골	1	-
독일	1	3	남아프리카	1	-
인도네시아	1	3	말레이시아	-	3
네덜란드	1	3	오스트리아	-	1
미국	1	3	아제르바이잔	-	1
호주	1	1	덴마크	-	1
브라질	1	1	에스토니아	-	1
캐나다	1	1	기니	-	1
체코	1	1	이란	-	1
이집트	1	1	폴란드	-	1
스페인	1	1	푸에르토리코	-	1
이스라엘	1	1	루마니아	-	1
몰도바	1	1	산마리노	-	1
슬로베니아	1	1	슬로바키아	-	1
우크라이나	1	1	튀니지	-	1
우즈베키스탄	1	1			

* **개인전** 128명(남·여 각 64명) | **단체전** 남·여 각 12개국 | **혼성전** 27개국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예상 한국 지도자

구분	성명	국가	
1	**오선택**	프랑스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 감독 · 전 LH 감독
2	**권용학**	중국 여자 대표팀 감독	· 전 중국 상해팀 감독
3	**김상훈**	일본 대표팀 감독	· 전 한국체대 선수
4	**이재형**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팀 코치 · 전 강남대학교 코치
5	**박채순**	베트남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팀 총감독 · 전 광주광역시청 감독
6	**박영숙**	부탄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 선수 · 전 이탈리아 대표팀 코치
7	**홍성칠**	이란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 선수('99 세계선수권 개인 금) · 전 대구중구청 선수
8	**이경출**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 전 국가대표 코치 · 전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 8개국 8명 참가 예정
* 국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해당 국가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까지 지도하였으나, 이번 파리 올림픽 현장 미출전한 지도자
  - 백웅기(인도) , 김재천(카자흐스탄), 김명선(우즈베키스탄), 임희식(몽골)

경기 세부 일정

Day -1	7월 25일(목)		
예선전	09:30 - 12:30	3:00	여자부 랭킹 라운드
	14:15 - 17:15	3:00	남자부 랭킹 라운드

Day 2	7월 28일(일)		
여자 단체전	09:30 - 09:53	0:23	여자 단체전 16강 경기
	09:53 - 10:16	0:23	여자 단체전 16강 경기
	10:16 - 10:39	0:23	여자 단체전 16강 경기
	10:39 - 11:02	0:23	여자 단체전 16강 경기
	14:15 - 14:38	0:23	여자 단체전 8강 경기
	14:38 - 15:01	0:23	여자 단체전 8강 경기
	15:01 - 15:24	0:23	여자 단체전 8강 경기
	15:24 - 15:47	0:23	여자 단체전 8강 경기
	15:47 - 16:10	0:23	여자 단체전 4강 경기
	16:10 - 16:33	0:23	여자 단체전 4강 경기
	16:48 - 17:11	0:23	여자 단체전 3~4위전
	17:11 - 17:34	0:23	여자 단체전 결승전
	17:34 - 17:54	0:20	여자 단체전 시상식

Day 3	7월 29일(월)		
남자 단체전	09:30 - 09:53	0:23	남자 단체전 16강 경기
	09:53 - 10:16	0:23	남자 단체전 16강 경기
	10:16 - 10:39	0:23	남자 단체전 16강 경기
	10:39 - 11:02	0:23	남자 단체전 16강 경기
	14:15 - 14:38	0:23	남자 단체전 8강 경기
	14:38 - 15:01	0:23	남자 단체전 8강 경기
	15:01 - 15:24	0:23	남자 단체전 8강 경기
	15:24 - 15:47	0:23	남자 단체전 8강 경기
	15:47 - 16:10	0:23	남자 단체전 4강 경기
	16:10 - 16:33	0:23	남자 단체전 4강 경기
	16:48 - 17:11	0:23	남자 단체전 3~4위전
	17:11 - 17:34	0:23	남자 단체전 결승전
	17:34 - 17:54	0:20	남자 단체전 시상식

Day 4	7월 30일(화)		
남·여 개인전 64강~32강	12:00 - 12:13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13 - 12:2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26 - 12:39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39 - 12:5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52 - 13:05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3:05 - 13:18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3:18 - 13:3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3:31 - 13:44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3:44 - 13:5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3:57 - 14:10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4:10 - 14:23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4:23 - 14:36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4:36 - 14:4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4:49 - 15:02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5:02 - 15:1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5:15 - 15:28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5:28 - 15:41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5:41 - 15:54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남·여 개인전 64강~32강	17:45 - 17:58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7:58 - 18:1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8:11 - 18:24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24 - 18:3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37 - 18:50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8:50 - 19:03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9:03 - 19:1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9:16 - 19:2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9:29 - 19:4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9:42 - 19:5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9:55 - 20:08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20:08 - 20:21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Day 5	7월 31일(수)		
남·여 개인전 64강~32강	12:00 - 12:13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13 - 12:2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26 - 12:39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39 - 12:5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52 - 13:05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3:05 - 13:18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3:18 - 13:3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3:31 - 13:44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3:44 - 13:5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3:57 - 14:10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4:10 - 14:23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4:23 - 14:36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4:36 - 14:4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4:49 - 15:02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5:02 - 15:1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5:15 - 15:28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5:28 - 15:41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5:41 - 15:54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남·여 개인전 64강~32강	17:45 - 17:58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7:58 - 18:1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8:11 - 18:24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24 - 18:3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37 - 18:50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8:50 - 19:03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9:03 - 19:1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9:16 - 19:2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9:29 - 19:4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9:42 - 19:5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9:55 - 20:08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20:08 - 20:21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Day 6	8월 1일(목)		
남·여 개인전 64강~32강	09:30 - 09:43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09:43 - 09:5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09:56 - 10:09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0:09 - 10:2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0:22 - 10:35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0:35 - 10:48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0:48 - 11:0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1:01 - 11:14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1:14 - 11:2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1:27 - 11:40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1:40 - 11:53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1:53 - 12:06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2:06 - 12:1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19 - 12:32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2:32 - 12:4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45 - 12:58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2:58 - 13:11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3:11 - 13:24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5:30 - 15:43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5:43 - 15:56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5:56 - 16:09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6:09 - 16:22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6:22 - 16:35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6:35 - 16:48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6:48 - 17:01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7:01 - 17:14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7:14 - 17:27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7:27 - 17:40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7:40 - 17:53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7:53 - 18:06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18:06 - 18:19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8:19 - 18:32	0:13	남자 개인전 64강 경기
	18:32 - 18:45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45 - 18:58	0:13	여자 개인전 64강 경기
	18:58 - 19:11	0:13	남자 개인전 32강 경기
	19:11 - 19:24	0:13	여자 개인전 32강 경기

Day 7	8월 2일(금)		
혼성 단체전	09:30 - 09:49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09:49 - 10:08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0:08 - 10:27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0:27 - 10:46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0:46 - 11:05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1:05 - 11:24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1:24 - 11:43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1:43 - 12:02	0:19	혼성 단체전 16강 경기
	14:15 - 14:34	0:19	혼성 단체전 8강 경기
	14:34 - 14:53	0:19	혼성 단체전 8강 경기
	14:53 - 15:12	0:19	혼성 단체전 8강 경기
	15:12 - 15:31	0:19	혼성 단체전 8강 경기
	15:31 - 15:50	0:19	혼성 단체전 4강 경기
	15:50 - 16:09	0:19	혼성 단체전 4강 경기
	16:24 - 16:43	0:19	혼성 단체전 3~4위전
	16:43 - 17:02	0:19	혼성 단체전 결승전
	17:02 - 17:22	0:20	혼성 단체전 시상식

Day 8	8월 3일(토)		
여자 개인전 16강~결승	09:30 - 09:43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09:43 - 09:56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09:56 - 10:09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0:09 - 10:22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0:22 - 10:35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0:35 - 10:48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0:48 - 11:01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1:01 - 11:14	0:13	여자 개인전 16강 경기
	13:00 - 13:13	0:13	여자 개인전 8강 경기
	13:13 - 13:26	0:13	여자 개인전 8강 경기
	13:26 - 13:39	0:13	여자 개인전 8강 경기
	13:39 - 13:52	0:13	여자 개인전 8강 경기
	13:52 - 14:05	0:13	여자 개인전 4강 경기
	14:05 - 14:18	0:13	여자 개인전 4강 경기
	14:33 - 14:46	0:13	여자 개인전 3~4위전
	14:46 - 14:59	0:13	여자 개인전 결승전
	14:59 - 15:19	0:20	여자 개인전 시상식

Day 9	8월 4일(일)		
남자 개인전 16강~결승	09:30 - 09:43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09:43 - 09:56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09:56 - 10:09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0:09 - 10:22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0:22 - 10:35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0:35 - 10:48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0:48 - 11:01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1:01 - 11:14	0:13	남자 개인전 16강 경기
	13:00 - 13:13	0:13	남자 개인전 8강 경기
	13:13 - 13:26	0:13	남자 개인전 8강 경기
	13:26 - 13:39	0:13	남자 개인전 8강 경기
	13:39 - 13:52	0:13	남자 개인전 8강 경기
	13:52 - 14:05	0:13	남자 개인전 4강 경기
	14:05 - 14:18	0:13	남자 개인전 4강 경기
	14:33 - 14:46	0:13	남자 개인전 3~4위전
	14:46 - 14:59	0:13	남자 개인전 결승전
	14:59 - 15:19	0:20	남자 개인전 시상식

2 대한민국 양궁



총감독

홍승진 HONG SEUNGJIN

소속 청주시청
생년월일 1966. 9. 20

청주시청 감독(2009~현재)
2020 도쿄 올림픽(남자 감독)
2019 세계선수권(남자 코치)

남자팀 감독

박성수 PARK SEONGSOO

소속 인천계양구청
생년월일 1970. 5. 19



인천계양구청 감독(2001~현재)
2012 런던 올림픽(남자 코치)
2006 아시안게임(여자 코치)
1988 서울 올림픽
남자 단체 금메달리스트

여자팀 감독

양창훈 YANG CHANGHOON

소속 현대모비스
생년월일 1970. 3. 2



현대모비스 감독(2006~현재)
2022 아시안게임(여자 감독)
2016 리우 올림픽(여자 감독)
1986 서울 아시안게임 4관왕

남자팀 코치

임동현 IM DONG HYUN

소속 청주시청
생년월일 1986. 5. 12



청주시청 코치(2019~현재)
2008 베이징 올림픽,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체 금메달리스트

여자팀 코치

김문정 KIM MUN JOUNG

소속 대한양궁협회
생년월일 1981.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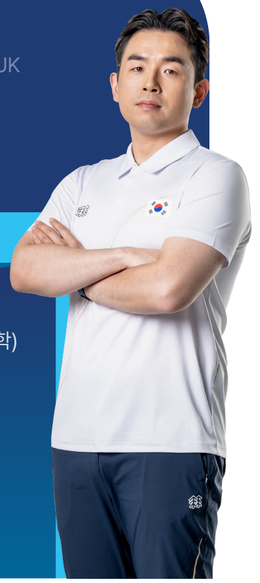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코치(2019~2023)
2002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 금메달리스트

의무 트레이너

이원혁 LEE WONHYUK

소속 대한양궁협회
생년월일 1995. 11. 22



전주대학교 졸업(물리치료학)
전주 청아람
한방병원 근무(2023)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여자부 리커브

임시현 LIM SIHYEON

출 생 2003. 6. 13

신 체 174cm

출신교 서울체고-한국체대

소속팀 한국체육대학교

경 력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개인전, 혼성전 금메달

2023 방콕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2023 방콕 아시아선수권
개인전 은메달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혼성전 금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양궁 샛별로 떠오른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다. 174cm의 훤칠한 키와 긴 팔다리 소유자로, 양궁 선수로서 좋은 신체 조건을 지녔다. 보통 여자 선수들이 쓰는 활의 장력은 38~40파운드인데 임시현은 42파운드의 강한 활을 사용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활을 처음 잡았다. 집에서 먼 북원여중과 서울체고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양궁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어린 나이부터 홀로서기를 해서 그런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법을 일찍 깨우쳤다고 한다. 임시현의 가장 큰 장점은 지도자의 피드백을 변명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태도는 성장 속도에 날개를 달게 했다. 어지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강심장인 성격도 한몫했다. 서울체고 재학 당시 고교 랭킹 1위로 이름을 날렸던 임시현은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양궁의 에이스로 우뚝 섰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것은 37년 만이었다.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와 6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3차 대회에서도 연거푸 골든벨을 울렸다.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최종 평가전에선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며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기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임시현을 통해 금빛 낭보를 받아볼 일만 남았다.

세계랭킹 2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월드컵 파이널	월드컵
1	1 1	3	1	9 3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여자부 리커브

전훈영 JEON HUNYOUNG

출 생	1994. 5. 29
신 체	161cm
출신교	인일여고-경희대
소속팀	인천광역시청
경 력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 단체전 은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단체전 은메달
	2014 레그니차 세계대학선수권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2012 아시아그랑프리 2차 대회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2009 오그던 카데트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
	2009 오그던 카데트 세계선수권 개인전 동메달



낯선 얼굴이지만 전훈영의 양궁 역사는 꽤 깊다. 서면초 재학 당시 양궁부 코치가 불러서 활시위를 당겨보게 한 게 시발점이었다. 금세 차세대 양궁 기대주로 떠올랐다. 중학생 때 2009 세계유스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에서 종전 세계기록보다 3점을 늘리며 카뎃부문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대학 시절에는 제33회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여대부 싱글 라운드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아쉽게도 올림픽 대표팀과만 연이 없었다. 2020 도쿄 올림픽팀에 승선했으나 경기 연기로 다시 치러진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맛봐야 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는 사이에 나이 앞자리도 바뀌었다. 그러나 전훈영은 여러 경험이 있는 게 자신의 강점이라고 여기며, 활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 결과,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하며 스스로를 입증했다. 전훈영은 일각에서 들리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되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라며 단단한 면모를 보인다. 지금 가장 큰 압박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여자팀 맏언니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 그에게 대중이 할 수 있는 건 무한한 믿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뿐이다.

세계랭킹 21위

세계대학선수권	세계유스선수권	월드컵
1 1	1 1	1 4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여자부 리커브

남수현 NAM SUHYEON

출 생 2005. 1. 27

신 체 169cm

출신교 순천여자고등학교

소속팀 순천시청

경 력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단체전 은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단체전 은메달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단체전 은메달

2023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단체전 은메달



국가대표 상비군 첫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선수다. 지난해까지 국가대표 후보 선수였던 남수현의 화살이 파리행에 명중했다. 양궁은 올림픽을 포함해 직전 대회 우승 경력이 있더라도 우선 출전 자격이 없다. 슈팅 라인에 선 모든 선수는 동일한 조건에서 대표팀 선발전을 치른다. 남수현한테는 기회였다. 잃을 게 없는 자는 무서운 게 없는 법. 올해로 스무 살이 된 신예 남수현은 당차게 활시위를 당겼다. 최후의 순간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3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배점 합계가 4위와 고작 1점 차이였다. 남수현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대회 단체전과 전국체전 단체전,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품에 안았다. 올림픽 사전 적응 훈련인 스페셜 매치 1차 리커브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단체 결승전에선 6발 모두 10점을 쏘며 황금 막내임을 입증했다. 국제대회 경험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격변의 상황에서 일어난다. 상비군에서 국가대표로 올라가며 파란을 일으킨 남수현이 대이변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세계랭킹 61위

1 2
월드컵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KOREA ARCHERY 2024 FACT BOOK



남자부 리커브

김우진 KIM WOOJIN

출 생 1992. 6. 20

신 체 180cm

출신교 충북체고-주성대

소속팀 청주시청

경 력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혼성전 금메달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혼성전 금메달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양궁에서 김우진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한 번도 어려운 올림픽에 무려 3차례 출사표를 던졌으니 말이다. '원조 신궁' 김수녕, 장용호, 임동현의 계보를 잇는 업적이다. 김우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형을 따라 양궁 세계에 입문했다. 재미 삼아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남다른 집중력으로 불과 1년 만에 충북소년체전을 제패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세계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 최초로 세계신기록 포상금을 받은 주인공이란 타이틀을 꿰찼다. 베테랑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보이며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따냈다. 잠깐의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며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3차에서도 모두 금메달을 수확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으로 활약하며 목에 건 메달 개수는 두 손과 발을 합쳐도 모자란다. 그런 김우진이지만 아직 올림픽 개인전 메달이 없다. 국가대표팀 6명 중 올림픽 경험자가 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대중들의 기대는 김우진에게 모이고 있다. 한국 양궁의 대들보로 우뚝 선 김우진. 큰오빠이자 맏형으로서 팀을 이끌며 개인적인 숙원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세계랭킹 2위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2	9 2	3 1	3 1

세계유스선수권	월드컵 파이널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1	8 1	29 16 11	2 1 2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남자부 리커브

이우석 LEE WOOSEOK

출 생 1997. 8. 7

신 체 175cm

출신교 인천체육고등학교

소속팀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경 력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단체전 은메달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2019 방콕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2019 스헤르토헨보스 세계선수권대회
혼성전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 은메달



이우석이 최종 평가전에서 2위로 통과하며, 마침내 한을 풀게 됐다. 긴 여정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활을 당겼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백발백중의 기반이 되었다. 지도자들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세라며 엄지를 치켜들 정도였다. 2013 전국체육대회에서 5관왕에 올랐고, 2014 유스올림픽에선 17세 이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은메달로 마치며 조기 전역의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비운은 계속됐다.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지만, 경기 연기로 인한 재선발전에서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것이다. 탈락의 쓴맛을 봤으나 이우석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만감을 버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덤덤하게 훈련에 매진한 결과, 바늘구멍 같았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티켓을 잡아냈다. 임시현과 호흡을 맞춘 혼성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태극기를 하늘 높이 올렸다. 12년 만에 첫 올림픽 무대에 선다. 이우석의 화살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금자탑을 쌓겠다는 각오로 시상대를 넘보고 있는 이우석의 눈에서 독기가 느껴진다.

세계랭킹 3위

청소년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1	2 1	6 1 2	2 2 1

세계유스선수권	월드컵 파이널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2 1	2	15 8 4	2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남자부 리커브

김제덕 KIM JE DEOK

출 생 2004. 4. 12

신 체 176cm

출신교 경북일고등학교

소속팀 예천군청

경 력
-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개인전, 단체전 은메달
-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 2018 유스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혼성전 금메달



역대 한국 남자 양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정조준했다. 첫 올림픽 무대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따낸 2관왕. 고등학생 막내가 만들어낸 기적이자, 미리 엿 본 한국 양궁의 밝은 미래였다. "파이팅!" 사자후로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다. 목청 높여 외친 기합은 과묵한 종목이라는 양궁의 선입견을 깼다. 겁 없는 신예만이 할 수 있는 당돌한 도전이었다. 베테랑 선수인 오진혁, 김우진에게도 통했고 그 기조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김제덕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양궁에 입문했다. 장난기가 많았던 그에게 집중력과 침착함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양궁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전국대회를 휩쓸며 '양궁 천재' 소리를 들었다. 쉽게 긴장하거나 방심하지 않는 성격은 금빛 조준으로 이어졌다. 2018 세계유스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2021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4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선 에이스 김우진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로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다. 더 이상 힘차게 포효하던 귀여운 막내는 없다. 김우진 외 유일한 올림픽 경험자로서 맏형의 오른팔이 되어 다시 한번 세계 무대를 평정하러 나간다.

세계랭킹 10위

- 2 올림픽
- 2 세계선수권
- 1 아시아선수권
- 1 아시안게임
- 1 1 세계유스선수권
- 8 4 월드컵

파리 올림픽 출국 현장 보러 가기

파리 올림픽 관전 포인트

금메달 싹쓸이에 재도전한다



한국 양궁은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가져왔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처음 도입된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혼성전 초대 우승에 성공했다. 개인/단체/혼성에서 우승자가 나오며 최초의 올림픽 양궁 3관왕이 탄생했다. 한국 양궁은 하계올림픽에서 총 27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하계올림픽 종목 중 최다 메달을 획득한 종목이다. 현재 대한민국 양궁팀은 하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발생한 총 71개의 메달 중 27개를 획득하여 최다 메달 획득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경기는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다.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정상을 차지하며 9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위에 오른 임시현은 "좋은 선수들과 합을 맞추게 되어 불안하지 않다. 열심히 하면 10연패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대업에 도전하는 홍승진 총감독은 "선수단과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변별력을 갖춘 선발전과 평가전을 통과한 선수들이니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선수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한국 양궁 역대 올림픽 메달 전적

1984 LA 올림픽	금메달 1개	여자 개인 (서향순)
	동메달 1개	여자 개인 (김진호)
1988 서울 올림픽	금메달 3개	여자 개인 (김수녕) / 여자 단체 (김수녕 · 왕희경 · 윤영숙) 남자 단체 (박성수 · 전인수 · 이한섭)
	은메달 2개	여자 개인 (왕희경) / 남자 개인 (박성수)
	동메달 1개	여자 개인 (윤영숙)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2개	여자 개인 (조윤정) / 여자 단체 (김수녕 · 이은경 · 조윤정)
	은메달 2개	여자 개인 (김수녕) / 남자 개인 (정재헌)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2개	여자 개인 (김경욱) / 여자 단체 (김경욱 · 김조순 · 윤혜영)
	은메달 1개	남자 단체 (장용호 · 김보람 · 오교문)
	동메달 1개	남자 개인 (오교문)
2000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3개	여자 개인 (윤미진) / 여자 단체 (김남순 · 김수녕 · 윤미진) 남자 단체 (김청태 · 장용호 · 오교문)
	은메달 1개	여자 개인 (김남순)
	동메달 1개	여자 개인 (김수녕)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3개	여자 개인 (박성현) / 여자 단체 (박성현 · 윤미진 · 이성진) 남자 단체 (임동현 · 장용호 · 박경모)
	은메달 1개	여자 개인 (이성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개	여자 단체 (박성현 · 윤옥희 · 주현정) 남자 단체 (임동현 · 이창환 · 박경모)
	은메달 2개	여자 개인 (박성현) / 남자 개인 (박경모)
	동메달 1개	여자 개인 (윤옥희)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 3개	여자 개인 (기보배) / 여자 단체 (기보배 · 이성진 · 최현주) 남자 개인 (오진혁)
	동메달 1개	남자 단체 (임동현 · 오진혁 · 김법민)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 4개	여자 개인 (장혜진) / 여자 단체 (기보배 · 장혜진 · 최미선) 남자 개인 (구본찬) / 남자 단체 (김우진 · 구본찬 · 이승윤)
	동메달 1개	여자 개인 (기보배)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 4개	여자 개인 (안산) / 여자 단체 (강채영 · 안산 · 장민희) 남자 단체 (오진혁 · 김우진 · 김제덕) 혼성 단체 (김제덕 · 안산)
토탈 합계	금메달 27개 | 은메달 9개 | 동메달 7개	

남자부
건재 과시
&
여자부
신인 강세

국가대표팀의 맏형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오진혁이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강채영, 안산, 장민희 역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둘째 형의 노릇을 톡톡히 하던 김우진이 새로운 리더가 되어 이끈다. 김우진 외 유일한 올림픽 경험자인 김제덕이 길라잡이로 나선다. 김우진은 한국 양궁 최초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일조하며 한국 양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패기 넘치는 김제덕은 도쿄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하며 역대 한국 남자 양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 경험을 한 김우진과 김제덕이 남자부의 앞과 뒤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올림픽 경험은 없지만 국제대회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이우석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우석은 올림픽 무대만 처음일 뿐 수많은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베테랑이다. 2024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임시현과 함께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위압감만 잘 떨쳐 낸다면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주목을 받고 있다.



여자부는 상대적으로 대표팀 경험이 적은 신인들의 강세가 펼쳐졌다. 도쿄 올림픽 멤버 3인이 모두 탈락하면서 새로운 얼굴들로 꾸려진 것이다.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게 올림픽 메달 획득만큼 힘들다.'라는 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모두 올림픽 경험이 전무하다. 여자 단체전 10연패와 개인전 10번째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자부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만큼 국가대표팀 막내에서 한국 여자 양궁의 에이스로 떠오른 임시현의 활약이 주목된다. 임시현은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역사상 37년 만에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3관왕에 이름을 올렸고, 악천후 속에서 열린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김우진과 합작하여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안기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자팀 주장인 전훈영은 올림픽 대회 경험은 없지만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온 베테랑 선수다. 2012 아시아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고, 2014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선 단체전 및 혼성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깜짝 스타로 떠오른 남수현은 상비군에서 국가대표팀으로 올라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역대 한국의 올림픽 2관왕은 대부분 신예 선수였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림픽 대표에 선발된 남수현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우진, 한국 최초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및 남자 최초 3관왕 도전

김우진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한국 양궁의 자랑, 김우진은 그동안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안기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역대 올림픽 3회 출전 선수로는 김수녕, 장용호, 임동현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국 양궁에 새 이정표를 세운 전설, 김수녕은 1988 서울 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 2000 시드니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여자 양궁의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장용호는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2000 시드니 올림픽과 2004 아테네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의 역사를 썼다. 특히 2004 아테네 올림픽 단체전에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파리 올림픽의 남자팀 코치인 임동현은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과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을 수상하며 명성을 떨쳤다.

김우진이 도쿄의 영광을 파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우진은 오랜 기간 리커브 강자로 활약해 왔다. 활을 잡아 온 경력이 적지 않은 만큼 자신감도 충분하다.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모두 금메달을 수확한다면 '남자부 최초 3관왕'의 수식어도 함께 얻게 된다.

역대 올림픽 3회 출전 선수

선수	올림픽	개인	단체
김수녕	1988 서울 올림픽	금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은	금
	2000 시드니 올림픽	동	금
장용호	1996 애틀랜타 올림픽	-	은
	2000 시드니 올림픽	-	금
	2004 아테네 올림픽	-	금
임동현	2004 아테네 올림픽	-	금
	2008 베이징 올림픽	-	금
	2012 런던 올림픽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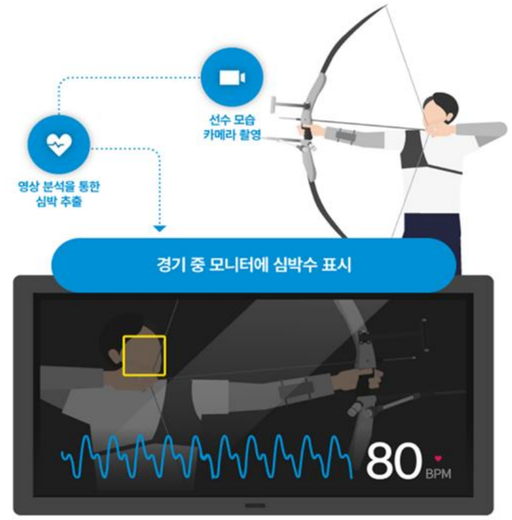
정적인 양궁에 박진감을 더하다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김우진의 심박수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였다. 개인전 1회전에서 첫 화살을 쏠 때 김우진의 심박수는 86bpm, 마지막 발은 73bpm이었다. 일반 성인 남성이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심박수와 맞먹는 수치로, 김우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 상대 선수였던 헝가리의 머처시 러슬로 벌로그흐는 첫발부터 심박수가 168bpm을 넘어섰고, 마지막 발은 162bpm에 달했다. 김우진은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세트 스코어 6-0(27-26 27-25 29-25)으로 벌로그흐를 꺾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심박수 중계는 올림픽주관방송사(OBS)에서 양궁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장치이다. 선수들로부터 12m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4세트가 혈관의 수축에 따라 변하는 미세한 신체 변화를 근거로 심박수를 산출했고, 그 수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경기의 재미를 배가했다.

현대차그룹 개발,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 파리 올림픽 도입

심박수 장치의 도입, 실시간 생중계는 선수들이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미션이었다. 단, 도쿄 올림픽 전부터 심박수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훈련에 활용한 한국 대표팀은 예외였다. 현대차그룹이 지원한 '비전 기반의 심박수 측정 장비' 덕분이다. 대한양궁협회는 2019 스헤르토헨보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WA가 심박수 중계 기술을 테스트하자, 한발 앞서 국내 훈련 환경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비전 기반의 심박수 측정 장비는 선수 얼굴의 미세한 색상 변화를 감지해 맥파를 검출 및 심박수를 측정한다. 경기나 훈련 중 접촉식 생체신호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첨단 비전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심박수 측정을 위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선수 얼굴 영역을 판별하고, 주변 노이즈를 걸러내는 별도의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하기도 했다. 훈련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용 원거리 고배율 카메라를 사용한다.

2024 파리 올림픽에는 기존의 파나소닉 대신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가 도입된다. 한국 선수단은 이미 동일한 장치로 사전 적응 훈련을 마쳤다. 코치진은 선수의 축적된 심박수 정보와 점수 데이터를 연계해 훈련을 진행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인 맞춤형 훈련도 시행했다. 생소한 환경에 사전 적응을 마친 것은 심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한양궁협회의 탁월한 선구안의 만남, 한국 양궁이 금메달 텃밭으로 자리 잡은 근원이다.

파리 올림픽 준비과정

2024 파리 올림픽 금빛 과녁 꿈꾸는 대표팀

총 5차례 선발전 및 평가전 일정 진행 후 올림픽 대표 선발 완료

- 2024 국가대표 8명 선발 후 최종 2차례 평가전을 통해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남녀 각 3명 선발
- 올림픽 대표(1위~3위), 국가대표 B팀(4위~8위) 합동훈련(파리 올림픽 대비 스페셜 매치 2회 진행)
- 올림픽 대표 진천선수촌 훈련
  (파리 올림픽 현지 경기장 동일한 브랜딩으로 설치하여 시각적 적응 훈련 및 연습 진행)

대회명	일시	장소	출전 인원	선발 인원	내용
국가대표 1차 선발전	2023. 9. 22 ~ 23	예천	남자 101명 여자 101명	남자 64명 여자 64명	• 70m 36발 경기 • 70m 36발 X 8회 = 288발 • 총점으로 64명 선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2023. 10. 30 ~ 11. 3	광주	남자 64명 여자 64명	남자 32명 여자 32명	• 70m 토너먼트 5회 • 리그전 1회 • 15발 기록 4회
				남자 20명 여자 20명	• 70m 토너먼트 5회 • 15발 기록 4회
국가대표 3차 선발전	2024. 3. 9 ~ 14	광주	남자 20명 여자 20명	남자 16명 여자 16명	• 70m 36발 기록 2회 • 70m 토너먼트 5회 • 15발 기록 4회
				남자 8명 여자 8명	• 70m 토너먼트 6회 • 리그전 1회 • 15발 기록 4회
국가대표 최종 1차 평가전	2024. 3. 23 ~ 29	청주	남자 8명 여자 8명	최종 1차 + 최종 2차 = 배점 합계	• 70m 36발 기록 2회 • 70m 토너먼트 9회 • 리그전 1회 • 15발 기록 4회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	2024. 4. 5 ~ 11	예천	남자 8명 여자 8명	남자 3명 여자 3명	• 70m 36발 기록 2회 • 70m 토너먼트 9회 • 리그전 1회 • 15발 기록 4회

- 국가대표 최종 1, 2차 평가전은 파리 올림픽 경기 일정과 동일하게 예선전 종료 후 2일간 공백기를 두고 대회를 진행함
-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은 올림픽 미디어 환경 적응을 위해 중계 카메라 현장 배치 및 생중계를 통한 선수 적응 기회 제공



2024년 1~3월
진천선수촌

① 국가대표 동계 입촌 훈련

- 2023년 선발전 상위 남녀 각 4명
- 2024년 2차 선발전 남녀 상위 4명 / 총 8명씩
- 동계 기술 및 체력 훈련

3~4월
2차례
최종 평가전

②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완료

- 남녀 상위 각 3명 → A대표팀(올림픽 대표)
- 남녀 각 4위~8위 → B대표팀(아시아컵 출전)

5~7월
집중 훈련

③ 올림픽 출전 대비 최종 훈련

- 올림픽 출전 A대표팀 진천선수촌 훈련
- A, B대표팀 진천선수촌에서 두 차례 스페셜 매치 진행

진천선수촌에서 파리를 만나다

5/7~9, 7/2~4. 두 차례에 걸쳐 스페셜 매치를 진행했다. 진천선수촌에 파리 올림픽 경기장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실제 조감도를 100% 반영한 것은 물론 간판과 대형 LED 등 구조물까지 똑같이 재현했다. 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선수들의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선수가 경기장에 출입하여 미디어 인터뷰 존으로 가는 동선도 실전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장내 아나운서 멘트, 관중 환호성, 소음 역시 사전에 녹음한 불어 및 영어 오디오를 틀어 현장감을 높였다. 시각과 청각에서 모두 '파리화'가 이뤄져, 세트장만 보면 이곳이 진천인지 파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1차에서는 A대표팀(올림픽 대표) vs B대표팀(아시아컵 출전)의 단체전 경기가 펼쳐졌고, 2차에서는 단체전과 더불어 개인전이 진행되었다. 홍승진 총감독은 "선수들이 실제 경기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출전에 앞서 환경 적응력은 높이고 심리적 부담감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가상의 앵발리드 경기장, 스페셜 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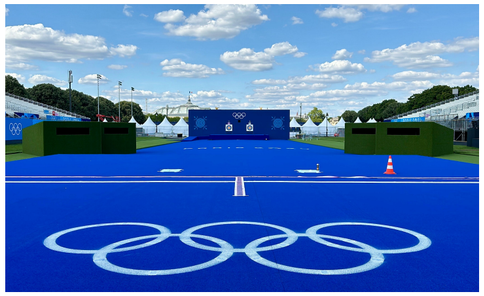
올림픽 양궁 경기장 환경을 최대한 모사하여 선수들의 사전환경 적응 기회 부여,
현장 적응력 향상 및 중압감 극복 훈련 시행

- 파리 올림픽 앵발리드 경기장을 재현한 세트장 구축
- 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영어와 불어 장내 아나운서 도입을 통해 방송 중계 환경 및 미디어 환경 적응력 제고, 경기 집중력 배양
- 올림픽 경기장 카메라 설치 환경과 유사한 레일 캠과 고성능 카메라 등 중계 환경 구축

진천선수촌 양궁장과 파리 올림픽 앵발리드 양궁장 무대 세팅 비교



▲ 진천선수촌 양궁장



▲ 2024 파리 올림픽 앵발리드 양궁장



앵발리드 광장 센강 바람 대비 훈련

현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파리 센강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 시행
(경기도 여주 남한강, 6/2~4)

- 파리 앵발리드 앞 센강과 유사한 최적의 훈련 장소로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인근 바람 대비 훈련 진행

한국 양궁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며, 2024 파리 올림픽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종목별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파리 센강의 강한 바람을 대비하여 6/2~4, 사흘 동안 여주 남한강에서 바람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강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면 현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여주 남한강은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리는 앵발리드 광장 북쪽 잔디 공원과 입지 조건이 유사하다. 올림픽 양궁 경기장은 나폴레옹 묘지가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과 센강 사이에 직선거리 약 200~300m 떨어진 거리다. 바람 훈련이 진행된 여주 강변 훈련장도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이 파리 센강과 흡사하며, 강으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파리 올림픽 대규모 관중 및 소음 적응 훈련

환경 변수에 의연한 이유

▲
전주월드컵경기장
소음 훈련 보러 가기

올림픽 현장 대규모 관중 대비 훈련 시행
(전주월드컵경기장, 6/29)

-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올림픽 단체전 형태로 실제 규정에 따라 70m 거리에 과녁을 설치
- 총 23분 동안 팀별 1인 1발씩 3발을 교대로 발사

태극 궁사들은 활을 들고 축구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집중력 강화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파리 올림픽이 펼쳐지는 앵발리드 양궁장에는 역대 최대 8천석 규모의 관중석이 설치되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 훈련이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올림픽 실제 규정에 따라 70m 과녁을 설치했다. 선수들은 강한 관중 소음과 거센 빗속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남자 대표팀 vs 여자 대표팀 간의 단체전 형태로 이뤄졌고, 팀별 1인 1발씩 3발을 교대로 쏘는 세트제 경기로 진행됐다. 경기 시간도 실전과 동일한 23분을 적용하여 실전 감을 익히게 했다. 관중은 훈련을 돕기 위하여 응원단의 북소리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일부러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의식하긴 했으나 흐트러짐은 없었다. 경기는 4세트까지 이어진 승부 끝에 여자 대표팀이 세트 스코어 5-3으로 승리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 선발주자로 나선 전훈영은 한 발을 제외하고 모두 10점을 기록했다. 금빛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심리 훈련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중요한 스포츠다. 마지막 한 발에 승패가 뒤바뀌는 상황 또한 자주 발생한다. 선수들의 중압감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훈련을 진행했다. 대표팀은 스포츠 심리 훈련을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영숙 박사의 지원을 오랜 기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대회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다루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김영돈 원장의 도움도 수시로 받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지도에 따라 경기 중 극도의 긴장감을 다루기 위한 호흡 훈련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명상 훈련을 새롭게 시행했다. 동시에 팀워크 향상과 소통력 강화를 위한 칭찬 릴레이 및 존중력 강화 실습도 병행되어 단체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심리 훈련을 통해 중압감 완화 및 스트레스 관리법 학습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영숙 박사, 정신과 전문의 김영돈 원장의 지원을 통한 심리 훈련 실시
-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와 3차례에 걸쳐 <대면 소통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훈련> 및 선수/지도자 존중 훈련 진행
- 움직임 명상을 통한 내면의 감각 관찰, 존중력 강화를 통한 결속력 향상

심리 훈련





미디어 트레이닝

올림픽 대회 현장은 전 세계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선수들은 수많은 카메라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뷰와 다양한 언론 이슈에 대응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대표팀은 스페셜 매치 종료 후 실전과 같이 진행된 본인의 인터뷰 녹화 내용을 다시 보고, 현직 전문 기자와 아나운서에게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는 교육을 받았다. 시선 처리와 발음 연습 등을 통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임과 동시에, 프로 선수로서 수준 높은 답변 내용을 준비해 보는 기회였다. 도쿄 올림픽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미디어 트레이닝은 한두 차례 교육을 통해서도 훨씬 향상된 인터뷰 능력과 미디어 대응 능력을 보이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림픽 시 집중되는 미디어 관심에 대응을 통한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이미지 제고

- 프로페셔널한 자기표현, 시선 처리, 발음 연습 등 언론 보도 내 긍정적인 인식 향상
- 양궁 담당 기자 현장 배치 및 인터뷰 실시, 경기 및 대회 관련 예상 질문/답변 사전 숙지

미디어 트레이닝





김우진, 임시현
VS
양궁 로봇

▲
국가대표팀 vs 양궁 로봇
이벤트 매치 보러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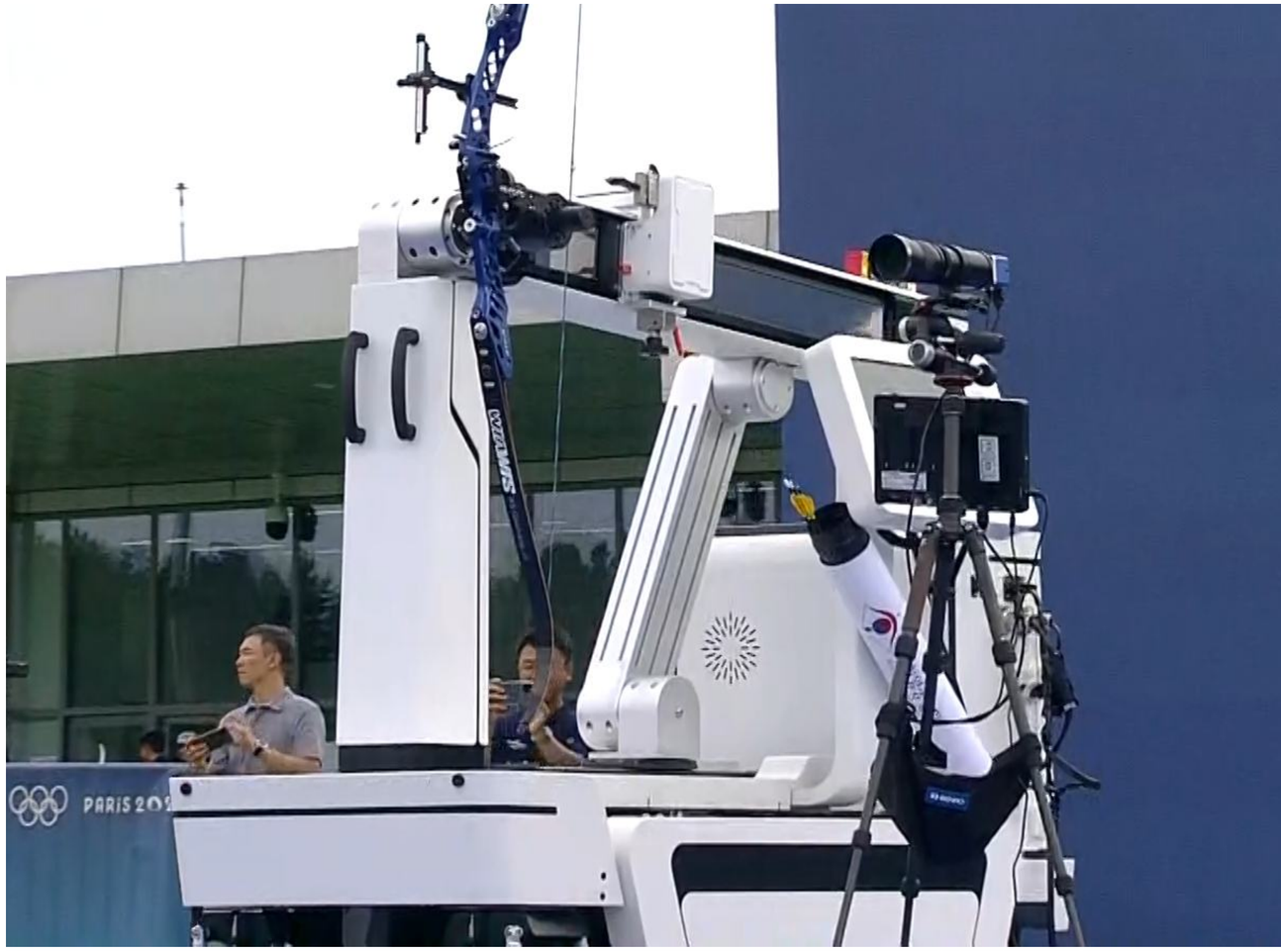
대한양궁협회 측이 한국 양궁의 정상 유지를 위해 특별 제작한 슈팅 머신이 깜짝 등장했다. 인간 대표 김우진과 임시현은 AI 대표 양궁 로봇과 함께 발을 맞춰 섰다. 사람과 로봇이 대결하는 기상천외한 광경이었다. 양궁 로봇은 센서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악하며, 감정이 없어 완벽에 가까운 적중력을 자랑한다. 바람을 읽고 오조준하기도 했다. 좀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초반 두 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에 꽂아 넣었다. 김우진은 양궁 로봇의 기세에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은 실로 대단했다. 로봇을 상대로 김우진은 3연속 10점을 쏘며 승부를 끌고 갔으나, 단 한 발로 승패가 결정 나는 슛오프에서 아깝게 패배했다. 임시현 역시 대등한 승부를 펼치다가 마지막 세트에서 4-6으로 졌다. 승리의 여신은 양궁 로봇의 손을 들어줬지만, 로봇을 상대로 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매 대회 거센 추격을 받아온 국가대표팀에게 슈팅 머신은 색다른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크다. 임시현은 "양궁 로봇이 100% 10점만 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꼈다. 실전에서 느꼈던 긴장감이었다."라며 파격적인 실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동현 남자대표팀 코치는 "감정이 없는 기계와의 대결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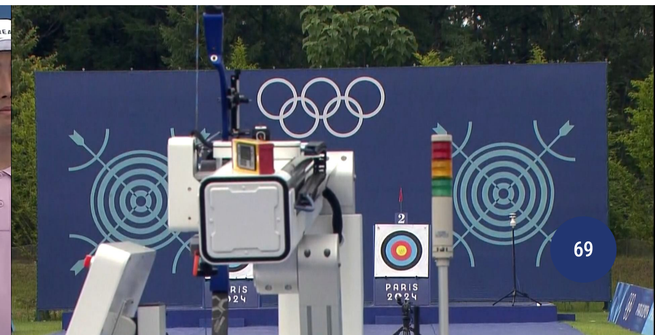
파리에서 만날 가상의 복병에 대비, AI 슈팅 머신 도입

- 스페셜 매치 2차에서 남자부 김우진, 여자부 임시현과 양궁 로봇의 이벤트 경기 진행
- 김우진은 15발 중 13발 10점, 2발 9점으로 동점 기록, 슛오프 끝에 양궁 로봇 승
- 슈팅 머신을 통해 바람에 대한 정보 습득, 강수 대처법 체험, 평정심 유지 요령 및 압박감 관리법 학습

국가대표팀과 양궁 로봇의 한판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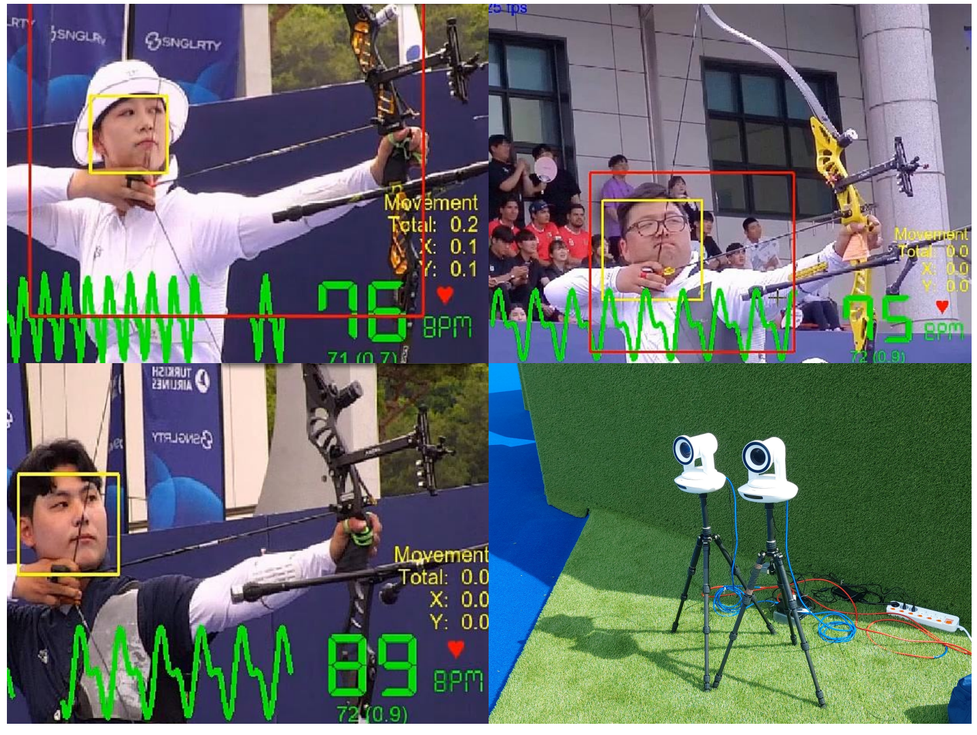




신기술 장비 지속 훈련 적용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R&D 기술 접목, AI(인공지능) / 비전 인식 / 3D 프린팅 등 첨단 신기술 도입

- 고정밀 슈팅 머신(화살 선별 장비) : 최상 품질의 화살 선별하는 장치, 신규 화살의 불량 여부 테스트 가능, 화살의 허리힘(Spine)과 중량 정밀 측정
- 점수 자동 기록 장치: 정밀 센서 기반의 전자 과녁, 점수와 탄착 위치 자동 판독, 훈련 데이터 베이스화
-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 비접촉 방식으로 맥파 검출, 훈련 방해 최소화를 위한 방송용 원거리 고배율 카메라 적용
-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 AI 딥러닝 비전 기술 활용, 셋업 및 릴리즈 시점 포착 후 자동 편집, 취약점 분석에 활용
- 선수 맞춤형 그립 : 선수의 손에 최적화된 그립을 3D 스캔해 3D 프린터로 제작, 알루마이드와 PA12 등 신소재 활용
- 개발 장비 지속 고도화 시행 및 훈련 적용을 통한 훈련 효과 향상, 선수별 개별 장비 제공을 통한 경기력 향상 추진, 선수들의 멘탈 강화 및 경기 외적 변수 최소화에 기여
- 기업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으로 스포츠 발전 등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으로 평가



고정밀 슈팅 머신(화살 선별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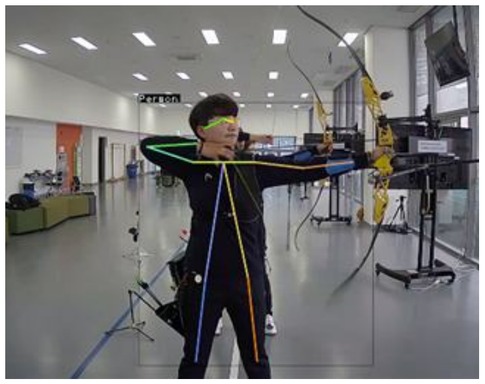
점수 자동 기록 장치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선수 맞춤형 그립



장소 및 경기 특성에 맞춰 소재 기술력 총집결한 신규 유니폼 제작

고온의 날씨 대비 발수/건조/Cooling 유니폼 개발 및 제공

- 솔기 부분 마찰 최소화, 안쪽에 흡습·속건 소재 사용, 목·등·무릎에 통풍 기능 추가

양궁 경기 최적화 양궁화 최초 개발 및 제공

- 국내 최초로 양궁 전용화 개발 및 지원, 신발 아웃솔에 접지력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비브람의 메가그립 적용
- 발등에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한 폴리우레탄 코팅 소재 사용
- 우천 시 경기를 대비하여 고어텍스 안감 사용

올림픽 출전 선수단 유니폼 스페셜 패키지 제공

-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단 유니폼 스페셜 패키지 제공
  (신규 유니폼 박스 제작, 올림픽 기념품, 선수 개별 네임텍 등)

유니폼 스페셜 패키지



신규 유니폼









파리 올림픽 현장 컨디셔닝 지원

사전 훈련장(스타드 프랑쉐) 세팅을 통한 최상의 컨디션 도모

- 140년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종합 스포츠 클럽, 사전 훈련 숙소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
- 회원제 스포츠 복합공간으로 기존 회원만 접근 가능,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건물 전체 대여
- 사전 점검을 통해 올림픽 예선 경기 후 사용할 양궁 국가대표팀 전용 훈련 시설 세팅
- 앵발리드 광장에서 연습이 불가할 시 사전 훈련 가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스타드 프랑쉐



• 7월 25일 랭킹 라운드 종료 후 2일 공백기 기간 훈련 장소로 활용

올림픽 경기장 인근 컨디셔닝 특별 공간(호텔 투미유) 마련

- 양궁 경기장으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선수단 전용 휴게 공간
- 6개 방 활용 및 2층 라운지 단독 대여,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경기 전 체력 유지에 주력

호텔 투미유



올림픽 경기 선수 편의 용품 제공

- 선수단 경기력 향상 및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 물품 지원
- 숙면을 위한 안대 및 귀마개, 아로마 디퓨저 제공
- 훈련/경기 전후 경기장 내 라운지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목베개 및 넥쿨러 제공

휴게 용품

멀티 콘센트	아로마 디퓨저	숙면키트	목베개	넥쿨러	올림픽 에코백
편의성	숙면 보조	안대 및 귀마개	경기장 라운지용	경기장 라운지용	공식 굿즈
					

3 올림픽 도전사

올림픽 연승 신기록 도전!

여자 단체전 10연패

올림픽마다 깨지지 않는 신화가 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9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유례없는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 10연패를 기록한 미국 수영 남자 400m 혼계영과 1988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9연패를 달성한 중국 탁구 여자 단식과 중국 다이빙 여자스프링보드 외 유일하다.

그 위대한 서사의 시작은 1988 서울 올림픽이다. 단체전이 처음 열린 서울 올림픽에는 김수녕, 왕희경, 윤영숙이 출전했다. 인도네시아와 30점 차이를 벌리며 낙승을 거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선수들이 일으킨 깜짝 돌풍이었다. 김수녕은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양궁 2관왕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김수녕을 필두로 이은경, 조윤정이 금메달을 확보했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스웨덴과 8강을 다툴 땐 240-240 동률이 나와 슛오프 끝에 4강에 올랐다. 하지만 태극 궁사들은 벼랑 끝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236점으로 중국(228점)을 따돌리며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은 시작부터 기세가 좋았다. 쟁쟁한 스웨덴,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수월하게 승리를 차지하며 한국 양궁의 위용을 보였다. 김경욱, 윤혜영, 김조순은 독일보다 10점 더 앞서 나가며 값진 1위를 따냈다.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선 은퇴를 선언했던 김수녕이 복귀하여 자리를 비웠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다. 김수녕을 필두로 김남순, 윤미진은 우크라이나보다 12점을 앞서며 금메달을 달성했다. 베테랑 김수녕과 신예 김남순, 윤미진의 환상적인 합작이었다.







이전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윤미진은 이성진, 박성현과 함께 2004 아테네 올림픽에 출사표를 던졌다. 결승전에서 만난 중국과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였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성현이 10점으로 마무리하며 241-240, 1점 차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중국의 홈 텃세가 심했으나, 주현정, 박성현, 윤옥희는 굳건한 금메달의 역사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결승전에서 중국을 만났지만 9점 차로 간극을 벌리며 6연패를 이어 나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가 폭우 속 값진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었다. 결승전 시작 직전부터 거센 비가 내려 국민들은 심장을 졸여야 했다. 하지만 끄떡없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기보배가 연장전을 앞두고 9점을 쏘며 중국과 단 1점 차로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렸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세트제가 도입됐다. 3명이 두 발씩 총 6발을 쏘아서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을 주는 방식이었다.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은 결승에서 러시아를 세트 스코어 5-1로 제패하면서 천하무적임을 입증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1년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장민희, 강채영, 안산은 서로의 활촉이 10점을 향해 꽂힐 때마다 엄지를 치켜들며 경기를 즐겼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다고 했던가. 결승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세트 스코어 6-0으로 꺾으며 선배들의 계보를 이었다. 10연패까지 단 한 발이 남았다. 금빛 질주의 역사가 이어질지는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의 손끝에 달려있다.

남자 단체전
3연패

2016 리우 올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열렸다. 양궁 경기가 진행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모 경기장은 바람이 거센 곳이라 모든 이들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 선 김우진, 이승윤, 구본찬은 양궁 종목에 출전한 12개국 중 랭킹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며 8강에 직행했다. 네덜란드, 호주를 차례로 제압하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금메달에 가까워질수록 태극기는 더욱 거세게 휘날렸고, 응원의 소리는 한층 더 우렁차졌다. 보답이라도 하듯 한국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만난 미국을 세트 스코어 6-0(60-57 58-57 59-56)으로 완파했다. 1세트에서 6발 모두 10점이었다. 2세트에선 미국이 27-28인 상황에 마지막 세 발을 모두 10점에 맞췄으나, 우리나라도 10점 세 발로 응수하며 승리를 가져왔다. 3세트에선 미국 브래디 엘리슨의 실점을 기회로 삼았다. 마지막 한 발 역시 과녁의 가운데를 명중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2012 런던 올림픽 준결승에서 미국에 당한 패배를 되갚은 명쾌한 복수였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포디움 가장 위에 올랐다. 2016 리우 올림픽에 이어 2연패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도쿄 올림픽은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렸다. 랭킹 라운드는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의 랭킹 라운드 필드에서 진행됐고, 엘리미네이션 라운드 및 결승 경기는 랭킹 라운드 필드와 인접한 임시 시설 경기장에서 이뤄졌다. 오진혁과 김우진, 김제덕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결연했다. 막내 김제덕은 매 경기 "파이팅!"을 외치며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격파 중 결승에서 대만을 만났다. 세트 스코어 4-0 상황에서 3세트에 진입한 한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만 내면 금메달이 확정인 상황이었다. 3세트 첫 세 발은 한국과 대만이 모두 9점을 쐈다. 뒤이어 첫 주자로 나선 김우진이 9점, 김제덕이 10점을 맞췄다. 대만은 10점, 9점이었다.

열기는 더욱 고조됐고, 수십만 개의 눈은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진혁에게 향했다. 승부의 변곡점마다 10점을 쏘며 후배들을 뒷받침하던 그는 사실 부상으로 어깨 회전근 3개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화살을 손에서 떠나보냄과 동시에 오진혁의 입이 움직였다. "끝". 정말 끝내주는 한 발이었다. 화살은 정확히 과녁의 정중앙에 꽂혔고, 값진 금메달을 달성했다. 세트 스코어 6-0(59-55 60-58 56-55)으로 여유롭게 기선을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선 김우진이 이우석, 김제덕과 함께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자연스레 시선은 남자 단체전의 올림픽 3연패 달성 여부에 쏠린다. 김우진은 “모든 선수가 함께 고생한 만큼 같이 얻을 수 있는 단체전 메달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세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 한국 남자 양궁은 최초의 올림픽 3연패 역사를 쓴다. 그 역사적인 여정에 김우진의 이름이 모두 오르는 셈이다.



올림픽에서 27번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다

양궁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종목이다. 올림픽에 양궁 종목이 채택된 이후로 금메달 2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전체 43개의 메달 중 금메달의 비율은 63%다.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메달의 28%를 차지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역대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는 총 43명이고, 그중에서 38명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다관왕도 여럿 만나 볼 수 있다. '신궁' 김수녕은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1개로 금, 은, 동을 모두 보유한 유일무이 선수이다. 박성현, 윤미진, 기보배, 안산은 금메달 3개를 기록했다. 유일한 3관왕인 안산은 2020 도쿄 올림픽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하여, 단 한 번의 올림픽만으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선수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적수가 없다. '집안싸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화려한 메달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 개수

1	김수녕	4개
2	박성현	3개
3	윤미진	3개
4	기보배	3개
5	안산	3개
6	조윤정	2개
7	김경욱	2개
8	장용호	2개
9	박경모	2개
10	임동현	2개
11	이성진	2개
12	구본찬	2개
13	오진혁	2개
14	김우진	2개
15	장혜진	2개
16	김제덕	2개

올림픽 금메달 다관왕

1	안산	3관왕
2	김수녕	2관왕
3	조윤정	2관왕
4	김경욱	2관왕
5	윤미진	2관왕
6	박성현	2관왕
7	기보배	2관왕
8	구본찬	2관왕
9	장혜진	2관왕
10	김제덕	2관왕

대한민국 역대 올림픽 성적

대회	한국 선수단 전체					양궁				비고
	금	은	동	합계	순위	금	은	동	합계	
1948 런던 올림픽	0	0	2	2	32위	59개국 선수 4,104명 (남 3,714명, 여 390명)				17개 종목 136세부종목
1952 헬싱키 올림픽	0	0	2	2	37위	-	-	-	-	-
1956 멜버른 올림픽	0	1	1	2	29위	-	-	-	-	-
1960 로마 올림픽	0	0	0	0	-	-	-	-	-	-
1964 도쿄 올림픽	0	2	1	3	27위	-	-	-	-	-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0	1	1	2	36위	-	-	-	-	-
1972 뮌헨 올림픽	0	1	0	1	33위	존 윌리엄스(미국) 2,528점 도린 윌버(미국) 2,424점				양궁 채택
1976 몬트리올 올림픽	1	1	4	6	19위	대럴 페이스(미국) 2,571점 루안 리온(미국) 2,460점				-
1980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불참	불참	불참	-	토미 포이콜라이넨(핀란드) 2,455점 케테반 로사베리제(소련) 2,491점				-
1984 LA 올림픽	6	6	7	19	10위	1	-	1	2	-
1988 서울 올림픽	12	10	11	33	4위	3	2	1	6	-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12	5	12	29	7위	2	2	-	4	-
1996 애틀랜타 올림픽	7	15	5	27	10위	2	1	1	4	-
2000 시드니 올림픽	8	10	10	28	12위	3	1	1	5	-
2004 아테네 올림픽	9	12	9	30	9위	3	1	-	4	-
2008 베이징 올림픽	13	11	8	32	7위	2	2	1	5	-
2012 런던 올림픽	13	9	8	30	5위	3	-	1	4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9	3	9	21	8위	4	-	1	5	-
2020 도쿄 올림픽	6	4	10	16	16위	4	-	-	4	206개국 11,000여명 33개 종목 339세부종목
합계	**96**	**91**	**100**	**283**	-	**27**	**9**	**7**	**43**	-

올림픽 메달 현황

여자 개인전

대회	금	은	동
1972 뮌헨 올림픽	도린 월버 (미국)	이레나 치들로스카 (폴란드)	엠마 가프첸코 (소련)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루안 라이언 (미국)	발렌티나 코브판 (소련)	제비니소 루스타모바 (소련)
1980 모스크바 올림픽	케토 로사베리체 (소련)	나탈리아 부츠조바 (소련)	파이비 메릴로토 (핀란드)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서향순 (대한민국)	리링주안 (중국)	김진호 (대한민국)
1988 서울 올림픽	김수녕 (대한민국)	왕희경 (대한민국)	윤영숙 (대한민국)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조윤정 (대한민국)	김수녕 (대한민국)	나탈리아 발레예바 (연합)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김경욱 (대한민국)	허잉 (중국)	올레나 사도브니차 (우크라이나)
2000 시드니 올림픽	윤미진 (대한민국)	김남순 (대한민국)	김수녕 (대한민국)
2004 아테네 올림픽	박성현 (대한민국)	이성진 (대한민국)	앨리손 윌리엄스 (영국)
2008 베이징 올림픽	장 쥐안쥐안 (중국)	박성현 (대한민국)	윤옥희 (대한민국)
2012 런던 올림픽	기보배 (대한민국)	아이다 로만 (멕시코)	마리아나 아비티아 (멕시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장혜진 (대한민국)	리자 운루흐 (독일)	기보배 (대한민국)
2020 도쿄 올림픽	안산 (대한민국)	엘레나 오시포바 (러시아올림픽위원회)	루칠라 보아리 (이탈리아)

개인전 토탈 합계 금메달 9개 | 은메달 5개 | 동메달 5개

여자 단체전

대회	금	은	동
1988 서울 올림픽	대한민국 김수녕 왕희경 윤영숙	인도네시아 릴리스 한다야니 누르피트리야나 사이만 쿠수마 와르다니	미국 디버러 오치스 데니스 파커 멜라니 스킬만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한민국 김수녕 이은경 조윤정	중국 마시앙준 왕홍 왕시아오주	연합(EUN) 나탈리아 발레예바 리우드밀라 아르즈한니코바 하투나 크브리비시비리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대한민국 김경욱 김조순 윤혜영	독일 바바라 멘싱 코넬리아 프폴 산드라 바그너삭스	폴란드 이보나 마르친키에비치 카타지나 크라타 외안나 노비츠카
2000 시드니 올림픽	대한민국 김남순 김수녕 윤미진	우크라이나 나탈리야 부르데이나 올레나 사도우니차 카테리나 세르듀크	독일 바르바라 멘싱 코르넬리아 포흘 산드라 바그너
2004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박성현 윤미진 이성진	중국 장 쥐안쥐안 허잉 린상	대만 천스위안 류먕황 왕정방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	중국 장 쥐안쥐안 천링 궈단	프랑스 버지니 아놀드 소피도데몽 베렌게레 슈
2012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	중국 청밍 쉬징 팡위팅	일본 하야카와 렌 가와나카 가오리 가니에 미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	러시아 투야나 다시도르지예바 크세니야 페로바 인나 스테파노바	대만 레이첸잉 린시쟈 탄야팅
2020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 강채영 안산 장민희	러시아올림픽위원회 크세니야 페로바 엘레나 오시포바 스페틀라나 곰보에바	독일 미셸 크로펜 샤를린 슈바르츠 리자 운루흐

단체전 토탈 합계 금메달 9개

남자 단체전

대회	금	은	동
1988 서울 올림픽	대한민국 박성수 전인수 이한섭	미국 제이 바스 리처드 맥키니 대럴 페이스	영국 스티븐 할라드 리처드 프리스트만 르로이 왓슨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페인 후안 홀가도 알폰소 메넨 데스 안토니오 바스케스	핀란드(FIN) 이스모 팔크 이아리 리포넨 토미 포이콜라이넨	영국 스티븐 할라드 리처드 프리스트만 사이먼 테리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미국 저스틴 휴이시 부치 존슨 로드 화이트	대한민국 장용호 김보람 오교문	이탈리아 마테오 비시아니 미켈레 프란질리 안드레아 파렌티
2000 시드니 올림픽	대한민국 김청태 장용호 오교문	이탈리아 마테오 비시아니 미켈레 프란질리 일라리오 디 부오	미국 빅 원덜 부치 존슨 로드 화이트
2004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임동현 장용호 박경모	대만 천스위안 류양황 왕정방	우크라이나 드미트로 흐라초우 빅토르 루반 올렉산드르 세르디우크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 임동현 이창환 박경모	이탈리아 일라리오 디 부오 마르코 갈리아초 마우로 네스폴리	중국 지양린 리원촨 쉐하이펑
2012 런던 올림픽	이탈리아 미켈레 프란질리 마르코 갈리아초 마우로 네스폴리	미국 브래디 엘리슨 제이크 카민스키 제이콥 우키	대한민국 임동현 오진혁 김법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김우진 구본찬 이승윤	미국 브래디 엘리슨 제이크 카민스키 자크 가렛	호주 알렉 포츠 라이언 타이약 테일러 워스
2020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대만 덩여우정 당즈준 웨이준헝	일본 카와타 유키 무토 히로키 후루카와 다카하루

단체전 토탈 합계 금메달 6개 | 은메달 1개 | 동메달 1개

남자 개인전

대회	금	은	동
1972 뮌헨 올림픽	존 윌리엄스 (미국)	군나르 예르빌 (스웨덴)	퀴외스티 라손엔 (핀란드)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대럴 페이스 (미국)	미치나가 히로시 (일본)	지안카르로 페르라리 (이탈리아)
1980 모스크바 올림픽	토미 포이콜라이넨 (핀란드)	보리스 이사첸코 (소련)	지안카르로 페르라리 (이탈리아)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럴 페이스 (미국)	리처드 맥키니 (미국)	야마모토 히로시 (일본)
1988 서울 올림픽	제이 바스 (미국)	박성수 (대한민국)	블라이미르 이예시에이예브 (소련)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세바스티앵 플뤼트 (프랑스)	정재헌 (대한민국)	사이먼 테리 (영국)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저스틴 휴이시 (미국)	망누스 페테르손 (스웨덴)	오교문 (대한민국)
2000 시드니 올림픽	사이먼 페어웨더 (오스트레일리아)	빅 운덜 (미국)	비에트서 반 알텐 (네덜란드)
2004 아테네 올림픽	마르코 갈리아초 (이탈리아)	야마모토 히로시 (일본)	팀 거디히 (오스트레일리아)
2008 베이징 올림픽	빅토르 루반 (우크라이나)	박경모 (대한민국)	바이르 바됴노프 (러시아)
2012 런던 올림픽	오진혁 (대한민국)	후루카와 다카하루 (일본)	다이 샤오샹 (중국)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구본찬 (대한민국)	장샤를 발라동 (프랑스)	브래디 엘리슨 (미국)
2020 도쿄 올림픽	메테 가조즈 (튀르키예)	마우로 네스폴리 (이탈리아)	후루카와 다카하루 (일본)

개인전 토탈 합계 금메달 2개 | 은메달 3개 | 동메달 1개

혼성 단체전

대회	금	은	동
2020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 김제덕 안산	네덜란드 스테버 베일러르 가브리엘라 바야르도	멕시코 루이스 알바레스 알레한드라 발렌시아

혼성 단체전 토탈 합계 금메달 1개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99 다성빌딩 6층
(사)대한양궁협회

TEL 02 - 420 - 4263

E-Mail archery@sports.or.kr

KOREAARCHERY

KOREAARCHERY_OFFICIAL

KOREAARCHERY

NAVER.ME/X4B69GMP

대한양궁협회
KOREA ARCHERY ASSOCIATION